



찬송가 590장

추석

가정예식

찬송가 301장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90장 (논 발에 오곡백과) 다 함 께

1. 논 발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니
2. 사 막에 샘이 백숫과 아꽃 두께 하신 주니
3. 은 해로 거둔 곡식 거두어 바치 고

목 소 리 가 다 들 어 할 려 루 야 찬 양
시 내 원 물 노 래 하 이 고 산 들 은 바 치 세
구 원 을 받 은 이 고 목 주 님 의 은 혜 라
고 철 따 라 거 둔 열 매 주 님 의 은 혜 라
고 메 마 른 허 무 뽕 꿀 매 어 단 음 을 드 헤 리 고

참 고 마 우 신 주 를 다 찬 양 하 여 라
생 곡 이 풍 성 주 게 주 복 을 배 주 드 리 세

기 도 가족 중에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쁜 날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감사와 격려를 나누게 하소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붙드시고,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며, 특별히 최근 홍수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의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어 속히 일상과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남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65:11절 자녀 중에서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새번역)

설 교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설 교 자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 께

1. 지 금 까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혜 라
2. 몸 도 맘 도 연 약 하 나 새 받 아 살 았 내
3. 주 님 다 시 회 을 날 이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이 켜 이 루 말 하 라
물 붓 운 집 주 게 말 는 겨 벗 을 날 도 멀 하 다
루 거 는 인 주 께 시 는 주 의 은 혜 도 짝 내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나 함 한 산 길 헤 맵 때
나 를 위 해 예 비 하 신 고 향 집 에 올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고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주 품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리
아 버 지 의 품 안 에 서 영 원 토 록 살 리 라

주의기도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제목: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가위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미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 해의 모든 과정을 돌보시고 아름답게 완성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거두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길의 디딤돌이 되고, 시련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아프고 힘든 날이 있었고,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때 붙드시고, 막막할 때 견딜 힘을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씌워 주신 은혜의 관입니다.

본문은 또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마다 생명과 풍요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뜬 것, 일할 힘을 얻은 것, 어려울 때 걸을 지켜 준 가족과 이웃이 있었던 것,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선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5편은 풍성한 곡식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은혜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한가위에는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용서를 나누어야 합니다. 농친 감사를 되찾고, 서운함은 풀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 가족의 풍성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최근 큰 홍수로 많은 희생과 피해를 겪은 네팔의 소식을 들으며, 한쪽에서는 감사의 밥상을 마주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는 풍요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위로가, 우리의 손길에는 도움이, 우리의 만남에는 기쁨과 평안이 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보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복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았듯이, 우리 가족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랑과 위로와 감사가 남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식

한국기독교
장로회 삼광교회